

# 군포교 활성화·효율화에 초점

## 조계종 군승특별교구 추진 배경

최근 조계종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 소속 중회 의원들이 의원간담회를 갖고, '군승특별교구' 설치와 관련한 중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후보 시절 내건 특별교구(군승·해외·선학원) 설치 공약과 맞물리면서, 불교계의 중점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 군법사 절대 부족, 군불자 감소, 재정 빈약 등의 문제점을 군승특별교구 설립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군포교현장의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군승특별교구를 왜 두려고 하는지 필요성과 선결과제, 특별교구의 형태 등을 살펴본다.

### ■ 특별교구의 지위와 의미

군승특별교구의 설치는 전국 24개 교구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 형태가 된다. 그간 중앙종무기관, 중앙종회, 군승회의 등이 군승특별교구의 위상과 관련해 저지 않은 논란을 벌여왔지만, 이제는 조계종이 군포교 전반을 관장할 독립 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특별교구는 포교원과 (구)군승단이 철출안으로 설치한 현 군불교위원회를 종단 공식기구인 교구제로 전환하는 형태로, 그 위상이 격상된다. 이는 군불교위원회가 군승특별교구로 확대·개편되는 것을 의미한다.

### ■ '군승특별교구' 왜 필요한가

이유는 간단하다. 군포교 '활성화'와 제도의 '효율성' 확보에 있다. 이는 조계종이 군포교 총책 수립, 군법당 운영 시스템 확립, 지원 및 후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종단 차원에서 관리·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군불교의 전체 규모가 점차 대형화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담당할 독립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군불교 규모가 군법사 130명, 군법당 400여 곳, 신도 15만여 명 등으로, 단순히 포교원 산하 포교단체로 묶어놓기에 너무 커버렸다 것이다.

특히 군승특별교구 설치의 현 군불교위원회에 일반 교구본사의 지위를 부여해 군법사들의 중법적 위상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제도라고 평가 받고 있다. 그간 군법사들은 군포교의 특수성을 감안, 종회에서 독선규정의 적용 예외를 받았지만, 하위 중법·령의 제도적 미비로 '비승비승'의 위치를 보여 왔다.

조계종 군불교위원회 전장은 사무국장은 "군승특별교구 설치의 군포교의 획기적인 발전 계기를 만들기 위해 가장 바람직한 제도적 장치"라며 "현역 군법사들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종단 내·외의 위상 재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 '늘어나 할 산이 많다'

현재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중앙종회, 군불교위원회, 군승회의 등의 해당 기관들은 원론적으로 군승특별교구 설



◇군법사 1인이 관리하는 군법당은 15곳 기량. 사진은 경기도 화천 육군 제 15사단 신병교육대 신입불자장병들이 군법당에서 발원문을 낭독하는 모습.

치의 당위성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상당한 입장차를 보인다. 핵심 쟁점은 △특별교구의 주지 자격 및 임명·선출절차 △교구로서의 권한 및 의무 이행 범위 △30여 개의 관련 중법령 제·개정 등이다.

우선 특별교구 주지 자격과 임명·선출 절차의 경우, 중앙종회와 포교원은 군포교 경협이 있는 중진급 비구를 포교원장이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군불교위원회와 군승회의는 예비역 군법사 출신의 비구를 '신 군승회의' 추천, 후 포교원장 임명'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군승회의 의장 장성화 군법사는 "교구 주지 자격은 군포

도록 전담교구를 선정, 정기적인 예산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중법령 제·개정 추진도 필수적이다. 승려법, 법계법, 교육법, 지방종정법, 각종 선거법 등 30여 개의 중법에 대한 꼼꼼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이는 조계종 전체 종현·중법의 40%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검토 기간만도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포교원 관계자는 내다보고 있다.

### ■ 현실적인 모델은 없다

천주교의 군종교구, 기독교의 군선교연합회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천주교 군종교구는 1958년 '군종신부단'을 창설, 61년 주교회의의 공식인준을 거쳐 지난 1989년 군종교구로 독립했다. 초대교구장은 예비역 군신부가 맡았으며, 교구장은 주교회의에 참석해 일반 교구청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행사한다. 또 지역별 교구청과 연계해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독교는 현재 특별교구가 없지만, 12개 교단에서 파견된 군종 목사의 선교지원을 위해 지난 72년부터 전군사사회위원회를 결성하고, 지금은 전국 13개 지부를 거느리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로 성장시켰다. 군포교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특별교구의 모델로 교구 주지는 군포교에 정통한 예비역 군승을, 임명절차는 군승회의가 추천해 총무원장 임명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교구로서의 권한과 의무 이행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는 취처·유발·재정 빈약 등 군포교 특수성을 감안해 교구로서의 권한과 의무 이행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들은 △군포교 개신 공청회 개최 △중앙종무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군승특별교구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군불교 규모 대형화... 포교원 감당 역부족

정책수립·군법당운영 등 종단차원에서 관리·지원

해당기관들 당위성 공감하나 각론에선 입장차이

## '특별 교구' 권한·의무 충분한 논의 거쳐야

교에 정통한 예비역 군승출신의 비구로 해야 군승특별교구 설치 목적에 부합된다"며 "군승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차원에서 총무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교구로서의 권한 및 의무 이행 제한 범위에서도 입장차가 뚜렷하다. 중앙종회와 포교원은 총무원장 선거인 선출권, 중앙종회에 중법 제·개정 건의 등의 권한을 제한하고, 승려교육 및 분담금 납부의 의무는 사안에 따라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군불교위원회와 군승회의는 일반 교구들의 의무사항을 그대로 수용할 여건이 아닌 만큼, 충분한 조율과정을 거쳐 종단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 지원 스님은 "특별교구에 일반교구의 권한과 의무를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군포교에만 전념할 수 있

년부터 전군사사회위원회를 결성하고, 지금은 전국 13개 지부를 거느리는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로 성장시켰다.

군포교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특별교구의 모델로 교구 주지는 군포교에 정통한 예비역 군승을, 임명절차는 군승회의가 추천해 총무원장 임명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교구로서의 권한과 의무 이행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는 취처·유발·재정 빈약 등 군포교 특수성을 감안해 교구로서의 권한과 의무 이행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들은 △군포교 개신 공청회 개최 △중앙종무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군승특별교구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정혜승  
보리방송모니터회  
간사

### 방송모니터有感

## '비판·트집잡기 하는 곳' 오해

## 모니터 활동 필요없는 세상 왔으면

#1. 보리방송모니터회  
'보리방송모니터회'가 적혀 있는 명함을 건넨다.

명함 받은 사람1: (의아한 표정) "보리방송이 새로 생겼나보죠?"

명함 받은 사람2: "보리 방송 모니터? 무슨 일을 하는데 예요?"

보리방 간사: 생긴 지 13년이나 된걸요. 방송국이 아니고요, 보리(菩提)가 이름이고 방송모니터 하는 곳입니다. YMCA시청자운동본부처럼 불교계의 유일한 방송 시청자 단체입니다.

명함 받은 사람1: 그럼 주로 뭘 모니터 해요? 불교계나간 주로 불교 방송만 하겠네요?

보리방 간사: (웃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YMCA처럼 방송전반에 관해서 해요. 우리 단체는 특히 어린이, 환경, 전통문화를 중점적으로 모니터 합니다.

### #2. 모니터

모니터(monitor)가 외래어라서 그런지 많이들 낯설어 한다. 방송모니터를 간략하게 말하자면 '방송감시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보리방송모니터회'에서 일하기 전에는 방송에서 불교를 코믹화 소재로 사용해도, 폭력이 미화되고, 특정직업과 신분이 왜곡 돼도 속으로만 '방송이 원래 저렇지...' 하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치부하였다.

하지만 이 일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방송전파는 국민의 것이지만 방송국의 것이 아니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집주인이고 방송국에 전세를 준 것이다. 세입자가 집을 엉망진창으로 쓴다면 집을 깨끗이 쓰라고 주인으로서 말 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방송모니터를 트집 잡기, 비판하기, 분별심으로 오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잘못된 길로 갈 때 알려주고 바로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반대로 집을 깨끗이 사용하면 집주인이 굳이 뭐라 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큰 바람이 생겼다. '방송모니터'가 필요 없는 세상이 기대해 본다.

#3. 무관심  
영어에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고 배운 적이 있다. 누가 일하면서 어려운 점을 물어본다면 감히 관심 없는 불자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개신교단체 방송모니터 활동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사실 있다.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면 더더욱 그렇다.

박수가 한손으로 칠 수 없듯이 홍보 부족도 있었지만 방송모니터 교육 때는 불자보다는 개신교의 문의 전화가 더 많았다. 현재 자원 활동가 6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로 전반적인 방송모니터를 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또 보리방 시청자 전화도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6통 뿐이다. 사실 보리방송모니터회 간사들 하기 전에는 방법을 몰라서 못했다. 잘못된 방송을 보고 어디로 지적해야 하는지, 시청자 운동이 뭔지, 미디어 교육이 왜 필요한지 잘 알지 못했다.

### #4. 칭찬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얼마 전 출간되어 화제가 되었다. '보리방송모니터회'에서는 매년 12월에 '보리방송문화상'을 선정해 수여한다.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전통문화의 보전과 계승 및 불교사회발전'을 위해 불교를 올바르게 표현한 프로그램을 시상하는 상이다. '보리방송모니터회' 초기보다 많이 불교 비하나 왜곡이 줄어든 것은 잘한 사람에 대한 칭찬과 지원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건국 55주년 反核反金 8·15 국민대회」가 오는 8월15일 오후 4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립니다

# 국가반역자를 심판하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다시 모여 국가반역자를 심판하고 韓美동맹을 강화하며 盧武鉉 정부의 반성을 촉구한다. 침묵하는 다수는 필요없다, 행동하는 다수만이 우리의 조국, 우리의 자유, 우리의 재산을 지켜낼 수 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念願을 모아 「反核反金 자유통일 3·1 국민대회」와 「反核反金 한미동맹 강화 6·25 국민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우리는 오는 8월 15일 건국 55주년을 맞아 서울시청 광장에서 또 다시 「反核反金 8·15 국민대회」를 열기로 하였다.

우리는 지난 55년간 민족반역자인 金日成 부자 세습 독재 정권의 도전을 극복해 가면서 건국, 호국, 근대화, 민주화의 급자탑을 쌓아올렸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대한민국과 그 주류 정통 세력의 이런 위대한 업적을 부정하는 비열어진 역사관을 가진 金大中 정권은 지난 5년간 민족사의 이단세력인 金正日 정권에 굴종하고 끌려다니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체성을 훼손하였고, 國益과 國富를 도용하여 민족공멸의 핵무기 개발에 쓰인 것이 분명한 최소 5억 달러의 군자금을 敵將에게 바쳤으며 8·15 건국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데 앞장서왔다.

오늘날 한반도에서는 북한 핵으로 인해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으나, 盧정권의 갈팡질팡하는 對美외교와 햇볕정책을 계승한 對北정책으로 우리 안보의 기틀이 붕괴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있는 극심한 경제불황은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며 국가를 좌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일어난 결과임을 직시코자 한다.

盧대통령은 국회가 여야 합의를 반대한 사람을 국가정보기관의 사병탐에 앉히기도 했으며, 6·25남침 후원자이자 통일 해방자인 毛澤東을 존경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기초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본질적 도전이라고 판단하고 救國을 위한 국민 저항권 행사도 심각하게 고려하며 그 귀추를 주시코자 한다.

2003년 7월 30일

## 주최: 反核反金 자유통일 국민대회

### 【공동대회장】

吉自延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목사) 金玉均 (천주교 한민족동기회 총재, 주교)  
吳滋福 (이북도민회총연합회회장, 전 국방장관) 李哲承 (자유민주민족회의 상임의장)  
鄭起勝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회장) 鄭草宇 (전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  
崔海一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회장, 목사)

### 애국시민 여러분, 8·15 국민대회를 함께 준비해갑시다!

이번 대회도 지난 두 번의 대회처럼 애국시민들의 참여와 성금으로써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침묵하는 다수는 필요 없습니다. 행동하는 다수만이 우리의 조국, 우리의 자유, 우리의 재산을 지켜 내고 역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애국시민들의 용기와 義勇의 결단, 그리고 총력을 호소합니다.

### 집행위원장 安應模 (황해도 도민회 회장 / 전 내무장관)

● 회비승금계좌: 참여단체회비(30만원)  
후원회원모집(천원도 민원도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은행 477401-01-057013 안응모  
우리은행 816-211112-02-101 안응모  
● 연락처: · 기획/총무팀: 전화/02)790-4815 ~ 6 팩스/02)790-4868(자유시민연대)  
· 홍보팀: 전화/02)527-4515 / 4518 팩스/02)527-4517(대명연합회)